

# 타인의 눈을 통해 느끼는 '새로운 세상'

권태현\_출판평론가

책은 사회를 반영하고 사회는 책을 만드는 데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출판시장의 변화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상황을 읽을 수 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여행신문집이 다터어 출간되고 있는 것도 우리 사회의 변화가 낳은 새로운 현상이다.

가장 큰 변화는 해외여행 자유화. 경제적인 여유와 함께 여행에 대한 열정이 풀리고 나자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나갔다.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찾는 여행객도 예전보다 훨씬 더 늘었다. 이처럼 여행 붐이 일어나자 제일 먼저 여행 가이드북이 붓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가이드북이 서점의 진열대를 지키는 동안 서서히 나타난 현상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여행신문집의 출현이다.

여행신문집은 가이드북과는 달리 여행을 다녀와서 자신이 보고 겪고 느낀 것을 수필 형태로 쓴 책. 여행을 다녀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경험한 일이겠지만, 자신이 체험한 것을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한다면, 자신이 체험한 것을 누군가에게 말하는 단계를 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질 때가 있다. 그때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글로 남기게 되고, 그 글이 모여 책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출판의 흐름을 살펴보면 199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인 여행신문집의 형식을 갖춘 책들이 출간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대형 베스트셀러가 등장하게 되고, 뒤이어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고, 출판시장의 한 분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가장 많은 부수가 팔리면서 독자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끌었던 책으로는 류시화 시인이 쓴 인도 여행기 《하늘 호수로 떠난 여행》, 오지여행가 한비아의 중국 이야기 《한비아의 중국 견문록》, 소설가 공지영의 유럽 수도원 기행 에세이 《공지영의 수도원 기행》 등이 꼽힌다. 광고 업계도 모두 외국을 다녀와서 쓴 이 책들은 여행신문집으로는 부동의 스테디셀러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 세 권의 책은 저자가 널리 알려진 인물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류시화와 공지영은 베스트셀러 작가로 이미 소문이 나 있었고, 한비아 역시 그 전에 펴낸 책들을 통해 오지여행가로 관심의 대상이 되던 인물이었다. 그러나 이들 여행신문집이 베스트셀러 대열에 오를 때는 저자의 명성이 작용했는지 몰라도 독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게 된 것은 그 책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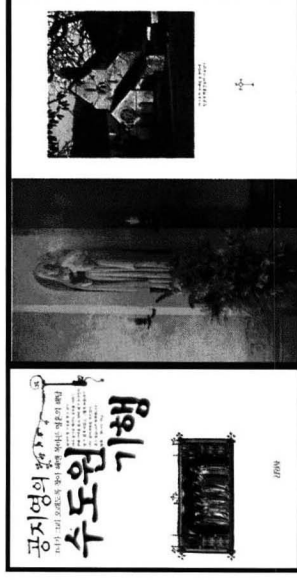
1997년 5월에 출간된 《하늘 호수로 떠난 여행》은 저자가 인도, 네팔, 티베트 등지를 여행하면서 체험한 감동적이고 엉뚱한 일화들을 엮은 책. 이 책은 류시화 특유의 문체로 인도를 아주 매력적으로 묘사하면서 인도인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과 철학적인 삶을 신비롭게 그려내고 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인도에 대한 인식을 바꾸면서 단순히 공감을 풀어주는 차원이 아니라 호기심을 더 많이 갖게 하는 놀라운 효과를 거둔 것이다.

2001년 8월에 출간된 《한비아의 중국 견문록》은 1996년부터 여행산문집을 펴내기 시작한 오지여행가의 시선으로 중국의 실상을 새롭게 전해준 책. 더구나 중국 이야기가 그냥 여행을 떠나서 보고 듣고 들은 것이 아니라 중국어를 배우기 위해 찾아가서 겪은 일을 토대로 하고 있어서 더 생생하다. 그후에도 국내외 저자들이 쓴 중국에 관한 책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지만 이 책보다 더 많이 읽힌 책은 없었다.

2001년 7월에 출간된 《공지영의 수도원 기행》은 수도원 탐방이라는 주제를 정해놓고 여행을 시작한, 조금은 특이한 기행문. 저자가 직접 찍은 아름다운 수도원 풍경과 아름다운 사람들이 이야기도 관심도 끌지만, 대학시절 이후 18년 만에 가톨릭으로 되돌아온 작가의 내밀한 내면풍경이 더 독자들을 사로잡았다. 수도원이라는 특정 지역을 탐방하고 있지만 인간 존재에 관심이 있는 모든 독자들의 심금을 울린 책이다.

이 세 권의 책이 그토록 많이 읽히고 꾸준히 읽힌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공통적인 이유는, 여행지에 대한 단순한 정보나 감상을 결들인 설명이 아니라 저자의 독특한 시선이 찾아낸 새로운 세계를 만나게 해준다는 것이다.

인도와 중국, 유럽을 다녀온 사람들은 많다. 그들 중에는 앞의 저서들을 쓴 세 저자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고들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글썽여 역시



그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을 어떻게 보고 왜 그렇게 느낀 수밖에 없었는지를 말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그 차이가 바로 앞의 세 권의 책이 스테디셀러로 계속 읽히고 있는 이유이다.

책을 소개하다 보면 어떤 책을 고르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질문을 종종 받는데, 여행 산문집의 경우라면, 앞에 소개한 세 권의 책이 갖고 있는 특징을 참고하라고 말하고 싶다. 저자가 새로운 시선으로 대상을 보고 있는지, 정말 눈앞에 펼쳐지는 것처럼 생생하게 말하고 있는지, 또 여행을 통해 얻어진 자 신민의 각별한 느낌을 설득력 있게 전하고 있는지.

여행산문집을 읽는 까닭은 결국 자신을 대신해서 떠난 타인을 통해 더 많이 느끼고 싶은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이 겪은 것보다 더 많은 세계를 전해 주지 않는다면 아무리 특별한 곳을 다녀왔다고 해도, 어떤 느낌을 요란하게 과장한다고 해도 별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여행하기에 좋은 계절이다. 직접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과 비례해서 서점에 진열되는 여행산문집도 늘어가고 있다. 어떤 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느낌의 폭은 현저하게 달라질 것이고, 앞으로의 여행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